■ 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81-416.
http://doi.org/10.17948/kcs.2022..96.381

부산 보래관(寶來舘)의 기원과 극장 운영에 관한 연구

김남석(金南奭)*

목 차

1. 서론: 보래관 연구의 필요성
2. 보래관의 창립과 사주의 변화
3. 보래관의 외관과 극장의 위치
4. 보래관의 영화 상영과 상영 광고
5. 결론: 부산을 지킨 극장, 시대를 증언한 극장

국문초록

보래관은 1910년대 부산에 설립된 극장으로, 1970년대까지 극장으로 운영되었다 보래관은 광복 이후에는 국립극장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보래관은 6.25전쟁 발발 이후에는 정부 부서로 사용되다가, 부산 지역민들의 반환 운동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극장 명칭은 보래관에서 1946년 국제영화극장으로 변화하였고, 1950년에는 문화극장으로 변모하였다. 이 극장은 오랫동안 부산을 대표하는 극장이었고, 일제 강점기부터 부산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3대 극장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이들이 찾고 기억하고 이용하는 극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는 달리, 이 극장의 가치를 조명하고 그 역사를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저조했다. 더구나 보래관의

*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흔적이 사라지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해야 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사적 공백을 메우고, 부산 극장가의 탄생과 역사 그리고 쇠퇴와 해산 과정을 고구할 목적으로 보래관 연구에 천착하고자 한다.

주제어: 보래관, 부산, 지역 극장, 문화극장, 국제영화극장.

1. 서론: 보래관 연구의 필요성

부산의 극장 연구의 선구자였던 홍영철이 사망한 이후, 부산 지역 극장의 기원과 극장가(劇場街)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현재 답보 상태이다. 홍영철의 연구가 워낙 방대하고 선구적이었기 때문에,[1] 그의 연구 성과를 넘어서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극장 연구가 지닌 한계와 제약을 이겨내려는 연구 풍토가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후 김남석이 부산의 극장에 대한 연구를 부분적으로 시행했고 그러한 연구 가운데 보래관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보래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행되지 못했고 해당 극장은 학문적으로 여전히 미답의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2] 그러한 측면에서 부산 지역의 극장 연구에서 보래관이 한층 주목될 필요가 있으며, 진전된 연구를 통해 그 실체와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결론을 확대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보래관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부산의 극장가와 부산 극장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논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1910년대에 부산에 설립된 이래,[3] 1970년대까지 극장으로 사용되며, 운영 사주와 극장 구조의 변화를 다양하게 선보인 예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부산의 3대 극장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고,[4] 해방 이후에는 국립극장으로 지정되었으며,[5]

---

1) 홍영철, 『부산극장사』, 부산포, 1914.

2) 김남석, 「부산의 지역 극장 소화관(昭和館)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1931년 설립부터 1968년 폐업까지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20, 402-442면; 「부산의 지역 극장 상생관의 역사적 전개와 운영상 특질에 관한 연구」, 『항도부산』 36,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18, 167-212면.

3) 「보래관[寶來館]의 낙어[落語]」, 『부산일보』, 1915년 1월 10일, 5면.

4) 「가을바람의 중심에 서서 (1) 부산 키네마 작품 희활극[喜活劇 〈부서진 협정〉」, 『부산일보』,

1950년 6.25 전쟁 발발 시점부터 정부 부서로 활용되었고,[6] 이에 대한 반환 운동까지 촉발했으며,[7] 환도 이후에는 각종 논란에 휩싸이는[8] 등의 다채로운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보래관(문화극장)의 이력은 부산 극장의 이력의 축소판이며, 변전하는 문화 정책의 허실을 보여 주는 척도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을 해방 이전의 보래관 시기로 한정하여 일제 강점기 극장의 특징과 변모 양상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래관은 해방 이후에도 국제영화극장, 문화관 등으로 극장 명칭이 변경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극장으로 운영되었음을 밝혀둔다.

보래관 연구의 또 다른 필요성은 보래관 건물이 극장으로서의 용도가 다한 이후에도 부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건물을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으로 사용되면서 과거의 건축 구조와 내부 정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산 고건축의 주요 관찰 대상일 뿐만 아니라,[9] 초기 극장의 위용과 이후 변전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샘플일 수 있었다.

아쉽게도 2020년대에는 그 위용과 자취를 온전히 찾기 힘들지만, 보래관이라는 존재가 보여 주는 상징성은 지금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극장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들며, 서울의 부민관이나 명동국립극장(시공관)처럼 그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보래관의 흔적을 허무는 일까지 벌어졌다. 따라서 보래관에 관한 연구와 함께 부산의 지역 극장을 연구하고 그 가치를 밝혀내는 일은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1928년 10월 5일, 6면.

5) 「국립극장 설치 부산 대구 등지는 결정」, 『경향신문』, 1949년 1월 19일, 3면.

6) 「남하(南下) 삼개월의 국회」, 『조선일보』, 1950년 10월 28일, 1면; 「부산문화극장 국방부서 관리」, 『마산일보』, 1956년 5월 9일, 2면.

7) 「부산문화극장 반환 백총리에 진정서」, 『조선일보』, 1954년 1월 18일, 2면.

8) 「국립극장의 환도(還都) 시급 문총(文總) 등서의 요망성(要望聲) 점고(漸高)」, 『동아일보』, 1957년 1월 9일,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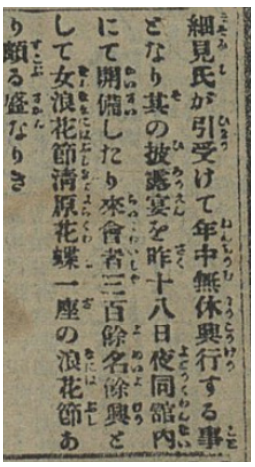
9) 「소화・보래관(일제 강점기 개관 부산 근대극장), 80년 역사 간직한 채 그 자리에…」, 『부산일보』, 2016년 8월 29일.

2. 보래관의 창립과 사주의 변화

1) 보래관의 변모와 사주의 면모

홍영철은 보래관이 1914년 11-12월에 개관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10] 현재까지는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로만 판단하면 보래관은 1915년에 개장한 상태였으며, 개장 이후 연속하여 '대입' 즉 관객 만원을 이룰 정도로 성황리에 운영되는 극장이었다.[11] 보래관 초창기 운영자는 '小野'였고, 이러한 보래관을 1915년에 인수하여 새롭게 경영하기 시작한 이는 '細見'이었다.[12]

개관 당시 보래관은 '기석(寄席) 보래관(寶來舘)'으로 불렸는데, 이러한 호칭은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재담・만담・야담 등을 주로 공연하는 대중적 연예장"의 성향을 의미한다. 아래 기사는 보래관의 준공과 관련하여 피로연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비록 일본 신문으로 보도된 내용이지만, 보래관의 유구한 역사를 증언한다는 점에서는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細見氏が引受けて年中無休興行する事となり其の披露宴を昨十八日夜同館内にて開催したり來會者三百餘名餘興として女浪花節清原花蝶一座の浪花節あり頗る盛なりき


寶來舘の披露宴 當地幸町寄席寶來舘は從來小野氏經營の處一月より

〈자료 1〉: 보래관 피로연[13]

10) 홍영철, 『부산극장사』, 부산포, 1914, 107면.
11) 「보래관[寶來館]의 낙어[落語]」, 『부산일보』, 1915년 1월 10일, 5면.
12) 「보래관의 피로연」, 『부산일보』, 1915년 1월 19일, 5면.

일본인 小野로부터 보래관을 인수했다는 일본인 細見[14]은 1915년 1월 18일 피로연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창립 시점에서 보래관은 일본인을 위한 극장이었고, 그리고 한동안 일본인 사주가 경영하는 극장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극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또한 극장 건립을 위한 자본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른 극장뿐만 아니라 보래관 역시 개장 초기(1910년대)에는 대개의 부산 극장처럼 부산에 거주하는 재조선 거주 일본인을 위한 극장으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기원으로 인해 보래관을 단순한 일본인 극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사주가 일본인이었다고 해도 극장을 찾는 관객과 극장에서 공연되는 콘텐츠가 모두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극장을 운영하는 주요한 주체 중 하나는 관객-대중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취향과 문화적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20년대만 해도 이미 보래관은 '조선 사람들을 본위(本位)로 하는' 극장으로 변모한 후였고,[15] 『조선일보』는 이를 인정하고 주기적으로 우대권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1910년대 보래관의 운영과 사주의 변모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5년 1월을 기점으로 하여 보래관은 연중무휴 영업 전략을 표방하였다. 또한 1915년 3월 시점에서는 활동사진 상영을 시도하며 상설관 운영을 공표하기도 했다.[16] 이러한 활동사진 상영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1915년 4월에도 활동사진 상영은 계속되었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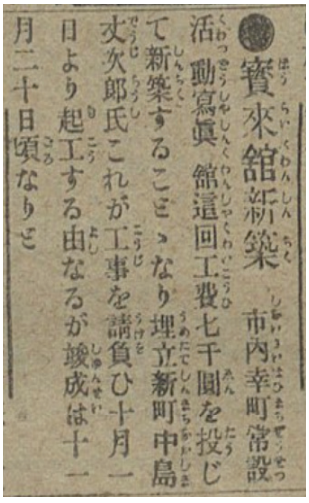
그러니 1915-1916년(9월 이전) 시점에서 보래관은 연극 공연장에서 영화 상설관으로의 이전 과정에 해당한다. 小野 운영 시절의 보래관은 연극 공연을 위주로 하는 극장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915년 보래관은 연극 공연장으로 공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점차 영화 상설관의 면모를 강화

13) 「보래관의 피로연」, 『부산일보』, 1915년 1월 19일, 5면.
14) 다른 기사에서는 '세수(細水)'로 지칭되기도 한다(「보래관의 화접(花蝶) 일행」, 『부산일보』, 1915년 1월 20일, 5면.
15) 「부산 보래관의 본보독자 우대」, 『조선일보』, 1925년 8월 7일. 3면.
16) 「보래관은 활동사진 상설」, 『부산일보』, 1915년 3월 7일, 5면.
17) 「보래관 사진 차환」, 『부산일보』, 1915년 5월 4일, 5면.

하는 정책을 도입해나갔다. 그러한 변화는 細見이 극장을 인수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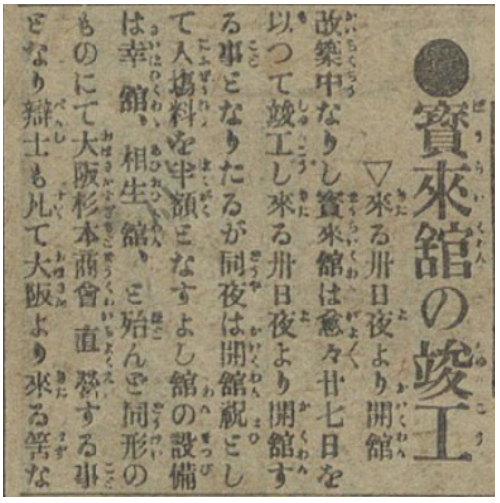
한편, 1916년 9월에 보래관은 신축에 돌입했고, 그해 12월에 준공되면서 자연스럽게 보래관은 행정에 위치한 '상설활동사진관'으로 그 위상이 변모하기는 했다.[18] 그러니까 1915년부터 1916년 9월 이전까지 보래관이 주로 연극 공연장으로 경영한다는 목표를 고수해 나갔다면(이 기간에도 활동사진 상영 역시 병행), 1916년 신(개축)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영화상영관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는 데에 치중했다고 할 수 있겠다.[19]

이러한 변화는 이웃 극장과의 비교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보래관과 이웃하고 있었던 부산좌가 연극 공연에 비중을 두는 경영 방침을 전반적으로 세워나갔다면, 이와 거리를 두면서 보래관은 영화상영관으로서의 경영 목표를 설정 겨냥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寶來舘新築　市内幸町常設活動寫眞舘這回工費七千圓を投じて新築することゝなり埋立新町中島丈次郎氏これが工事を請負ひ十月一日より起工する由なるが竣成は十一月二十日頃なりと

〈자료 2〉: 보래관 신축[20]



寶來舘の竣工

▽來る卅日夜より開舘

改築中なりし寶來舘は愈々廿七日を以つて竣工し來る卅日夜より開舘する事となりたるが同夜は開舘祝として入場料を半額となすよし舘の設備は幸舘、相生舘、と殆んど同形のものにて大阪杉本商會直營する事となり辯士も凡て大阪より來る筈な

〈자료 3〉: 보래관 준공[21]

18) 「보래관[寶來館] 신축」, 『부산일보』, 1916년 9월 29일, 7면.
19) 다만 보래관이 활동사진상설관을 표방한 시점은 반드시 1916년 9월 신축 이전은 아니었다. 1916년 이전에도 상설관을 표방한 사례는 발견되고 있다(「보래관 활동의 활동」, 『부산일보』, 1916년 4월 9일, 5면.)
20) 「보래관[寶來館] 신축」, 『부산일보』, 1916년 9월 29일, 7면.

전술한 대로, 1916년 9월 보래관은 신축에 돌입했다. 공비 7천 원을 투입하여 신축 작업에 들어섰는데, 공사 청부자는 신정(新町)의 中島丈次郎이었고, 11월 1일에 기공(공사 착수)하여 11월 20일 무렵에 '신 보래관'이 완공되었다. 1910년대 당시 '신축'은 보통 세 가지 이유로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화재로 인한 공사, 낙후된 시설 재건축 그리고 영화관 시설의 확장이었다.

이 중에서 1916년 신축 공사는 보래관에 영화상설관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지만,[22] 그렇다고 보래관이 영화관으로만 상용된 것은 아니었다. 1917년 보래관의 중요 상연을 보면, 1917년 4월 木雲右衛門 일행의 방문 공연,[23] 千葉新次 일행의 방문 공연[24] 등이 성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 공연은 실상, 부산 내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공연 성격이 짙었다. 그러니 이러한 현상은 보래관이 영화상설관으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무대극)에 대한 욕구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부 주장처럼 보래관을 '영화상영관'으로만 확정하는 견해는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보래관의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연극 공연'보다는 '영화 상영'에 비중을 두는 경영 정책을 표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래관의 위상을 영화상영관으로서의 입지로만 살피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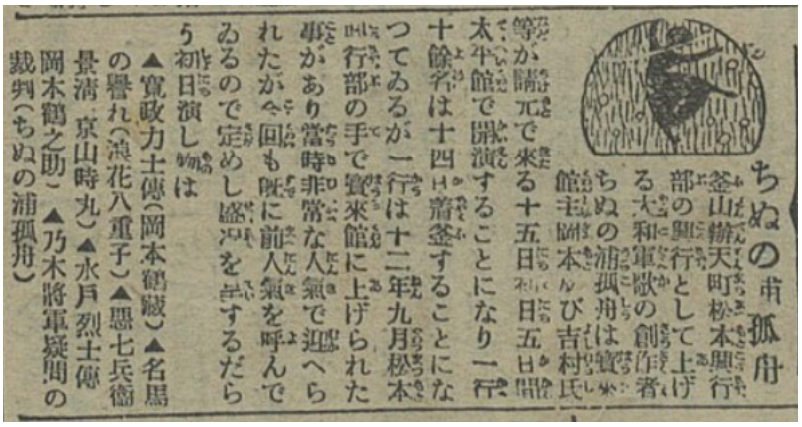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보래관이 1915년 개장부터 줄곧 영화에 대한 관심과 상연 빈도를 높였던 것은 사실이고, 1930년대 상황을 볼 때 필름 영사가 주 업문였던 것도 인정되며,[25] 나아가서 1920-30년대 부산의 3대 영화상설관으로 손꼽히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화 상영 못지 않게 연극 공연을 수용하여 관객들에게 상연하는 경우도 상당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래관을 단순 영화상설관으로만 치부하는 기존의 견해는 수정을 요하지 않을 수 없다.

---

21) 「보래관[寶來館]의 준공」, 『부산일보』, 1916년 12월 27일, 5면.
22) 「보래관 신사진[新寫眞]: 본사 독자 우대」, 『부산일보』, 1917년 10월 21일, 6면.
23) 「2대 목운[目雲] 부산 와; 보래관에서 공연 펼쳐」, 『부산일보』, 1917년 4월 6일, 7면; 「운[雲] 드디어 개연: 13일부터 보래관에서」, 『부산일보』, 1917년 4월 13일, 7면.
24) 「보래관의 신파극 천엽신차[千葉新次]」, 『부산일보』, 1917년 10월 23일, 4면.
25) 「부산보래관(釜山寶來舘) 발화」, 『조선일보』, 1930년 10월 11일, 7면.

2) 보래관의 경영 체계와 합자회사로의 변환 과정

1920년대 중반 보래관 관주는 '岡本'이었다.


ちぬの浦孤舟
釜山辨天町松本興行部の興行として上げる大和軍歌の創作者、ちぬの浦孤舟は寶來館主岡本及び吉村氏等が講元で來る十五日より五日間太平館で興演することになり一行十餘名は十四日着釜することになつてゐるが一行は十二哉九月松本興行部の手で寶來館に上げられた事があり當時非常な人氣で迎へられたが今回も既に前人氣を呼んでゐるので定めし盛況を呈するだらう初日演し物は
▲寬政力士傳(岡本鶴藏)▲名馬の譽れ(浪花八重子)▲愚七兵衛景清(京山時丸)▲水戸烈士傳(岡本鶴之助)▲乃木將軍疑聞の裁判(ちぬの浦孤舟)

〈자료 4〉: 1920년대 보래관주 '강본(岡本)'[26]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9년판)』을 참조하면, 보래관은 1928년 6월 13일 설립된다. 1920년대의 보래관은, 기존(1910년대)의 보래관과 다른 운영 체제를 갖추고, 새로운 인수자에 의해 새로운 극장으로 거듭 경우로 판단된다. 비록 극장의 이름이 같고, 위치가 같고, 심지어는 건물이 같을지언정, 운영자와 경영 체계가 달라진 경우였다고 해야 한다. 이 시기 보래관 극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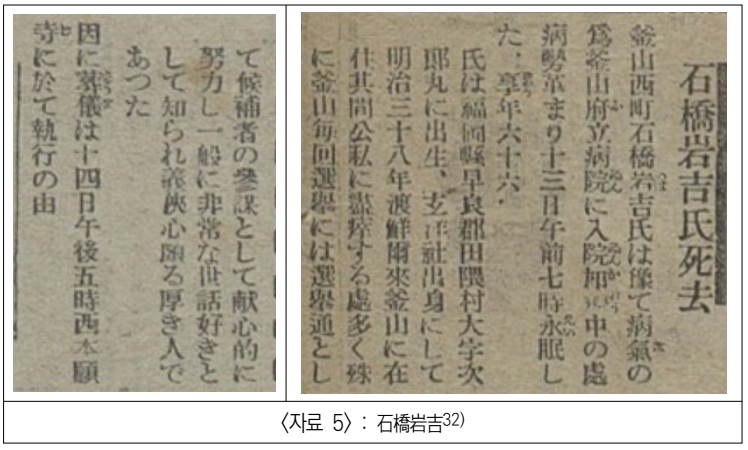
서류상으로 볼 때, 1928년 보래관(寶來舘)은 자본금 8,000원의 합자회사였고, 설립과 경영 목적은 '활동 사진, 기타 흥행'을 표방했다. 기재된 설립일은 1928년 6월 13일로, 기존의 보래관과 차이를 두고 있으며, 주소 역시 부산부 부평정 1정목 35로, 행정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보래관과 차이를 보인다고 해야 한다.[27]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한 사안은 사장 즉 대표의 면면이다. 사장은

26) 「〈치누[ちぬ]의 포고주[浦孤舟]〉, 태평관에서 개연」, 『부산일보』, 1925년 9월 14일, 2면.
27)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9년 판), 동아경제시보사.

石橋岩吉이었다.[28] 1920년대 초반 石橋岩吉은 자본금 10,000원의 합자회사 명석상점(明石商店)의 중역이었다. 이 명석상점은 '잡화, 소간물류(小間物類)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는 회사로, 부산부 행정 1정목(38의 1)에 위치해 있었다.[29] 이러한 위치는 1928년 설립되는 보래관의 위치와 매우 근접한 위치이다.

또한 石橋岩吉은 부산부 행정 2정목(16)에 위치한 부산공립장의(釜山共立葬儀)의 사원으로 재직한 바 있고,[30] 1920년대 중반에는 부산부 대신동(263번지)에 있는 농립업 관련 회사로 자본금 12,000원의 조선양토장려회(朝鮮養兎奬勵會)의 감사(1925-1929년)로 재직했다.[31] 1934년 9월에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에도 부산 서정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의 유해는 서본원사에 안장되었다(서본원사는 보래관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



石橋岩吉氏死去

釜山西町石橋岩吉氏は豫て病氣の爲釜山府立病院に入院加療中の處病勢革まり十三日午前七時永眠した・享年六十六・

氏は福岡縣早良郡田隈村大字次郎丸に出生、玄洋社出身にして明治三十八年渡鮮爾來釜山に在住其間公私に盡瘁する處多く殊に釜山每回選擧には選擧通とし

て候補者の參謀として獻心的に努力し一般に非常な世話好きとして知られ義俠心頗る厚き人であつた

因に葬儀は十四日午後五時西本願寺に於て執行の由

〈자료 5〉: 石橋岩吉[32]

일본인 石橋岩吉의 거주지 혹은 활동지가 주로 행정, 대신정, 그리고 서정 일대라고 할 때, 이 지역은 부산의 극장 벨트(대)에 해당하고 당연히 보래관의 존재에 대해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石橋岩吉이 보래

28)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9년 판), 동아경제시보사.
29)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3년 판), 동아경제시보사.
30)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3년 판), 동아경제시보사.
31)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5-1929년 판), 동아경제시보사.
32) 「석교암길[石橋岩吉] 씨 사망」, 『부산일보』, 1934년 9월 14일, 2면.

관의 새로운 시작(재설립)을 추진할 이유와 명분은 뚜렷해 보인다. 특히 石橋岩吉이 1928년 보래관을 새롭게 설립하기 이전까지 재직했던 조선양토장려회에는, 石橋岩吉의 행적이나 이후 선택과 관련된 단서가 남아 있다.

보래관 (재)설립과 관련하여 조선양토장려회의 이사로 재직하고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인물은 中島鶴太郎으로 일찍부터 부산 대신정에 정착한 사업가 겸 도시계획자로, 1920년대 초반부터 학교조합의원, 부협의원(府協議員), 부회의원(府会議員)으로 활동하면서, 무엇보다 '대신정(大新町)을 시구(市区)가 정연한 주택지로 조성'한 공로를 가진 인물이다. 특히 대신정과 영주정(瀛州町)을 교통할 수 있는 터널 공사를 기획한 인물이기도 하며, 초량(草梁) 해안 매립 공사를 맡아 수행한 인물이기도 하다.[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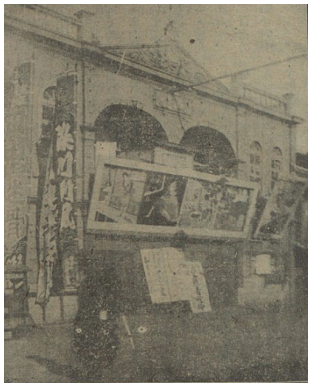
이러한 中島鶴太郎은 1916년 보래관 신축과 연관된 中島丈次郎과의 연관 관계를 점치도록 종용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보래관이라는 극장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성명의 유사성과, 지역적 유사성 그리고 직업의 유사성도 함께 드러내는 경우이다.

3. 보래관의 외관과 극장의 위치

1) 보래관의 초기 원형

보래관은 특이한 외형을 지닌 극장이었다. 1910년대 극장의 외형도 여타의 극장과 차별화된 극장 모습이었지만, 보래관의 외형은 비단 설립기 외형만 특이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보래관은 증개축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특이한 외형과 유려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곤 했다. 아래의 오른쪽 사진(그림 2)는 개성적인 보래관의 모습이 유감없이 드러난 경우였다.

33) 「부산부 제1부회 부의장 선거」, 『부산일보』, 1939년 6월 7일, 1면; 「부산부 행정조사회 위원결정」, 『중외일보』, 1928년 7월 24일, 4면; 『조선공로자명감』, 823면;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그림 1〉 : 1916년 보래관 전경[34]



〈그림 2〉 : 정면 외관이 부각된 보래관 정경[35]

보래관은 지상층(거리)에 관람과 통행(입구)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길모퉁이(전차가 통행하는 장수통 주 도로)를 끼고 상권을 여유 있게 장악하는 인상을 지니고 있다. 보래관 양 측면은 길가에 면하고 있어 유동 인구에 노출되어 있고, 그 입구는 두 길의 교차로에 해당하므로 전반적으로 시선을 끌고 동선을 끌어들이기에 적당하다. 특히 보래관 앞을 통과하는 장수통 근간 도로는 당시 부산 지역 최고의 번화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외형적 규모를 볼 때, 보래관의 건축 방식은 넓이(확장감과 안정감)의 측면에서 시각적 주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축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극장 건물이 시각적으로 좌우로 확장된 인상을 자아낸다. 이러한 보래관은 유동 인구와 상권 인파를 흡수하고 극장 관련 광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목적도 아울러 담보하고 있다.[36] 이러한 극장 구조는 보래관을 더욱 특별한 극장으로 만드는 효과마저 일구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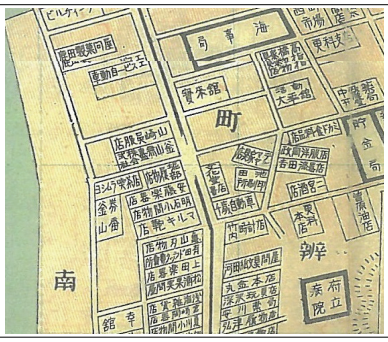
34) 「본지(부산일보) 애독자 우대와 보래관」, 『부산일보』, 1916년 1월 29일, 5면; 김남석, 같은 글, 2018, 184-186면.
35) 「보래관」,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75610&cid=49330&categoryId=49330
36) 김남석, 같은 글, 2018, 167-212면.

2) 보래관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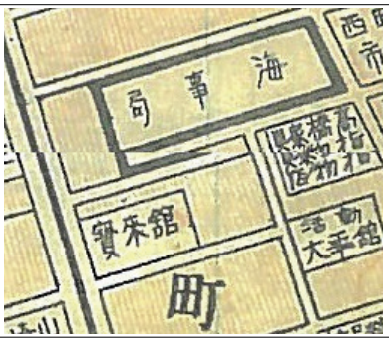
대정 8년, 1919년 간행된 1만분의 1 지도에서 행정 일대를 살펴보면, 보래관이 자리 잡고 있다. 보래관은 일제 강점기 '장수통'으로 흔히 지칭되곤 하던 행정과 남빈정을 나누는 주 도로에 인접한 구역(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보래관의 위치는 인접했던 극장인 태평관과 관련하여 살필 때 더욱 분명하게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 1920년대 태평관의 주소는 행정으로 표기되어 있다.[37] 당시 태평관의 위치는 보래관과 인접한 구역이었으며, 장수통으로도 불리는 행정/남빈정을 나누는 주 도로에 인접한 구역(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보래관이 해안가에 가까웠다면 태평관은 장수통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보래관에 큰길에 면해 있었고, 태평관은 떨어진 위치를 점유한 셈이다.

1930년대에도 이러한 행정 구역은 변하지 않았고,[38] 행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가 1938년 무렵 태평관은 부산부 부평정 2정목에 위치한 극장으로 그 표기가 바뀌기 시작했다.[39] 행정구역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태평관이 있는 부평정은 여전히 번화가였고, 부산역과도 가까워서 절도단이 근거지로 삼아 활약할 만큼 시내 핵심 구역에 해당했다.[40]



〈자료 6〉 : 보래관-태평관-행관이 위치한 행정(부평정) 일대[41]



〈자료 7〉 : 태평관-보래관 상대 위치(확대)

37) 「태평관의 화재 소동 곧바로 진화」, 『부산일보』, 1927년 12월 20일, 4면 ; 「태평관 우물은 병균과 무관계」, 『부산일보』, 1929년 8월 6일, 4면.
38) 「극장 인부로 조직된 대절도단(大窃盜團) 검거」, 『조선일보』, 1937년 5월 29일, 7면.
39) 「십팔세 처녀 유괴 매각범 부산서(釜山署)에서 엄탐중(嚴探中)」, 『동아일보』, 1938년 9월 2일, 3면.
40) 「절도범 삼십일명에 피해액 만여 원」, 『조선일보』, 1937년 6월 19일, 3면.

태평관은 보래관보다 근간 도로 내부 지역에 위치했던 극장으로, 지리적인 점유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보래관은 태평관의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보래관은 태평관과 같은 구역에 위치했지만, 보다 길가에 면하여 사람들의 주목과 이동에 유리한 극장이었다. 그리고 두 극장의 블록 근처에는 행관이 자리 잡고 있어, 해당 지역이 극장 밀집가로 점차 주목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도 도출된다.

실제로 행관이 전소된 이후, 사주 櫻庭藤夫는 행관의 후신인 소화관을 보래관 근처에 축조한다.[42] 이러한 극장 위치는 그 이후 보래관이 크게 성장하는 주요 이유로 작용한다. 이러한 극장의 위치를 1919년 지도에서 비정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료 8〉 : 대정 8년(1919년) 행정과 남빈정 일대[43]

보래관은 행정 2정목에 위치한 극장으로 해안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빈정 3정목과 잇닿아 있다. 우편으로는 용두산 자락과 맞닿아 있고, 위쪽으로는

41) 「부산부」, 『대일본직업별명세도』, 1929-1930년 간행.
42) 김남석, 같은 글, 2020, 405면.
43) 김남석, 같은 글, 2020, 405면.

서정(3정목)으로 연결되며, 좌측으로는 행정 2정목을 거쳐 부평정으로 연결되고 있다. 북쪽으로는 동본원사와 묘각사 등의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부청, 부립병원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본정과 근거리에 있다.

이러한 거리의 모습을 현재의 지도에서 살펴보면, 보래관 일대가 주요 상업 시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보래관에 자리 잡은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44]



〈그림 4〉 : 2010년대 중후반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 일대 풍경[45]

44)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 네이버 지도 (2017년 6월 21일 검색)

보래관은 행정과 남빈정을 가르는 도로(주요 도로)에 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아래의 보래전 전경에서 확인되듯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큰길을 끼고 있었다. 이러한 도로는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로였기 때문에, 유통과 흐름의 혜택을 볼 수 있었고, 탁 트인 정경으로 인해 멀리서도 극장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러니 극장으로의 접근이나 극장에 대한 선전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지도에서도 이러한 보래관의 흔적은 남아 있다. 좌측 지도에서 보래관 자리(국민은행 광복동 지점)은 광복동을 관통하는 상점 거리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우측 거리뷰를 통해서는 그 일대의 상점 풍경과 거리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보래관의 위치와 주변 환경이 광복동(당시 행정)의 요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진출하여 집중적으로 거주한 곳으로 일종의 거류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1903년 이 지역 지도를 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확연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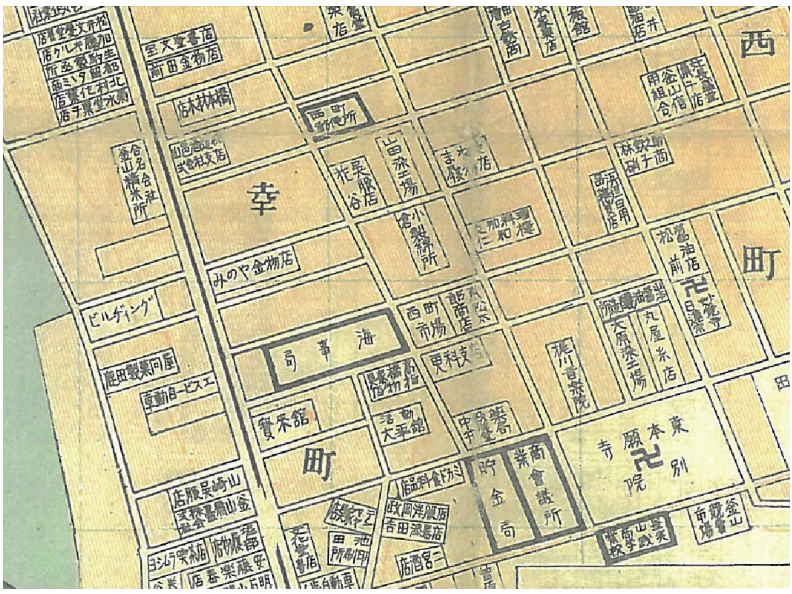
〈자료 9〉 : 1903년 용두산과 해안가 일대 풍경

위의 지도에서 용두산을 중심으로 일본식으로 구획된 본정/남빈정/서정/

45)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거리뷰)」, 네이버 지도(2017년 6월 21일 검색)

행정 일대의 모습이 보인다.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곳 형상의 육지는 용두산을 가운데 두고 세로로 구획되어 있었으며, 해안선을 따라서는 굴곡 있는 호선을 그리고 있었다.

보래관의 주변 환경을 다음의 지도는 더욱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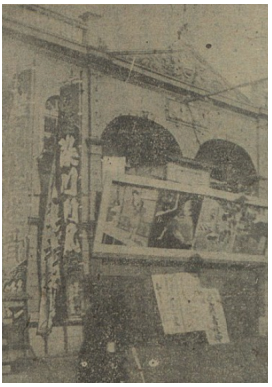
〈자료 10〉 : 행정에 위치했던 보래관

행정과 남빈정을 가르는 도로에서 보래관을 바라볼 때 보래관은 남쪽과 동쪽을 길가에 면하고 있다. 그 매표소는 동쪽과 남쪽 길이 만나는 모서리에 위치해 있다. 매표소 위에 '寶來舘'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이러한 간판이 걸린 모서리를 살짝 깎여 있다. 이러한 건물 형태는 보래관이 동남쪽을 향해 위치한 건물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이러한 건물의 형해는 〈그림 2〉로 확인되는데, 아담한 2층 건물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를 일으켰다. 특히 건물이 길가를 면하여 뻗어 있게 되면서, 행인들 혹은 이용자들의 주목을 끄는 효과도 창출한다.

3) 보래관의 외부 풍경과 내부 전경

보래관은 다양한 외관으로 유명한데, 숱한 변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점도 매우 진귀하다고 해야 한다. 보래관은 여러 차례 증개축 혹은 신축 개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채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사진은 1916년 무렵의 보래관이다. 비교를 위해 부산좌의 정경을 함께 인용하겠다.



〈그림 1-1〉 : 1916년 보래관 전경[46)]



〈그림 5〉 : 1916년 1월 부산좌 전경[47)]

희귀하게 남아 있는 보래관의 전경은 1층 출입구와 2층의 발코니 그리고 그 발코니를 덮듯 걸려 있는 광고판으로 대변된다. 건물 정면 좌측으로는 깃발이 걸려 있고, 건물 우편에는 매표소로 보이는 방이 자리 잡고 있다. 1층 출입구 중앙에는 상연 예제가 입간판의 형태로 세워져 있고, 지붕에는 거리 쪽으로 나온 깃대가 걸쳐져 있다.

깃발은 당시 노보리(幟)로 통칭되었는데, 극장 광고와 상연 예제 홍보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선전 방식이었다. 중앙 출입구에 입간판을 세우고 문 위에

46) 「본지(부산일보) 애독자 우대와 보래관」, 『부산일보』, 1916년 1월 29일, 5면; 김남석, 같은 글, 2018, 184-186면.
47) 「부산좌」, 『부산일보』, 1916년 1월 3일, 3면.

영화의 한 대목을 모사한 광고 그림을 내걸어 극장에서 현재 상영하고 있는 혹은 상영할 예정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효과를 앞세우고 있다. 방문 극단과 상연 단체에 의해 공연 예제가 계속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입간판과 극장 간판 광고는 행인과 대중의 이목을 끌기에 유리했고, 그로 인해 부산의 극장가를 비롯하여 일제 강점기 대중 극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광고 방식이었다. 보래관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증거가 위의 사진이다.

다시 건물 구조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자. 이러한 건물 구조는 같은 시기의 부산좌와 비교할 때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두 극장은 근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직사각형으로 쌓아 올린 건물 층 구조나, 지붕의 삼각형 구조물, 그리고 아치를 그리면서 외벽을 장식하는 발코니 등이 그러하다. 특히 지붕에 나타나는 삼각형 장식, 즉 '하후즈쿠리'라고 불리는 맞배지붕은 일본 건축에서 합각머리에 덧댄 장식을 말하거나 그 부분을 일컫는 명칭이다.[48] 이러한 하후즈쿠리는 일본의 고대 건축에서 유래했는데, 1916년 보래관과 같은 시점의 부산좌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특징이다. 물론 아래에 소개하는 1928년 건립된 보래관에서도 이러한 하후즈쿠리는 외부 특징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보래관 전경 사진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항 중 하나는 상연 예제를 그림으로 그려 극장 입구 정면에 내거는 방식이다. 이러한 광고 방식은 지역 극장에서 흔히 보이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공들인 광고 전략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해야 한다. 이 간판 그림으로 인해 관객들은 해당 극장에서 상연하는 예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래관의 내부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희귀하게나마 보래관의 내부 구조를 보여 주는 사진을 보면, 무대가 의외로 협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8) 오자사 요시오, 이혜정 역, 『일본의 극장과 연극』, 연극과인간, 2006, 82면.



〈그림 6〉 : 보래관의 내부 풍경[49]



〈그림 7〉 : 보래관의 내부 객석 풍경[50]

객석은 넓고 관객 수용은 상당한 숫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대의 깊이는 매우 협소해서 연극 공연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포켓 없고, 무대를 감싸는 구조물이 없어, 등・퇴장에 제약이 강하고, 조명 역시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49) 「보래관에서 열린 제국재향군인회 부산분회」, 『부산일보』, 1925년 6월 22일, 2면.
50) 「녹정예창기위안회」, 「부산일보』, 1925년 5월 2일, 7면.

위의 사진에는 연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 연단에 한 인물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그 뒤로 간략한 인물 명단을 적은 안내 명단이 걸려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강연이나 회의를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배우들이 나와서 극 중 공간을 가정하여 연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많아 보인다.

또한 보래관의 1920년대 내부는 다다미 구조였고, 관람석이 불편한 편이었다. 반면 보래관 내부의 관객 수는 상당해 보인다.

4) 보래관의 외형과 그 변모 과정

1920년대 보래관은 상당히 변모된 모습으로 포착된다. 본래 보래관은 해안가 도로와 내부로 통하는 도로를 끼고 자리 잡고 있다.





〈그림 8〉 : 보래관 전경(음영 변화에 따른 비교)[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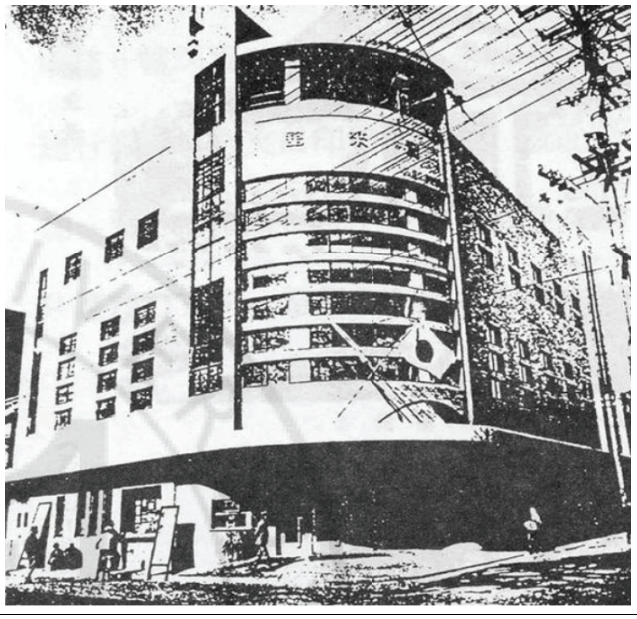
앞에서도 한 번 살펴본 바 있는 것처럼, 위의 사진은 1928년에 다시 건립된 보래관 정경이다(동일한 풍경의 두 가지 형태를 나란히 배치해 보았다). 극장은 700석(상층 250석, 하층 450석) 규모였고, 2층 목조 건물로 축조되었다.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전체 건물은 'V'자 혹은 폭이 좁혀진 'ㄴ'자 모양으로 생겼고, 획이 꺾이는 지점을 정면(앞면)으로 삼고 있다. 전반적으로 건물의 측면이 길가와 수평으로 놓이도록 건축되었고, '보래관'이라는 현판이

51) 「보래관」,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75610&cid=49330&categoryId=49330

걸린 정면이 길모퉁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정면을 바라볼 때 좌측 1층 측면에는 상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1층과 2층 사이에는 깃발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위의 사진에서 극장 관람을 원하는 관객 대중들이 줄을 서 있고, 줄 선 이들은 'ㄱ' 자 모양의 좌측에 설치된 출입구를 겨냥하고 있다. 즉 이 극장에서는 관객들이 1층 측면 건물을 타고 이동해서 모퉁이 좌측 출입구로 입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술은 관객들이 늘 건물의 1층 측면에 인접하여 대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둔다. 이러한 건축 방식은 건물의 측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가치를 격상시킬 수 있다.

보래관은 1930년대 다시 한번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1930년대 보래관 정경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존재한다. 우선 그 사진 자료를 살펴보자.



〈그림 9〉 : 1930년대 보래관 풍경[52]

52) 「소화・보래관(일제 강점기 개관 부산 근대극장), 80년 역사 간직한 채 그 자리에…」, 『부산일보』, 2016년 8월 29일.

1920년대 보래관과 전반적으로 흡사한 건축 양식의 보래관이 1930년대에 재탄생하듯 나타났다. 이 보래관은 4층 높이의 건물로, 전체적으로 창이 많아 외부와의 교섭이 강하게 느껴지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1층 측면에는 극장 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관객들의 출입구와 함께 매표소, 극장 광고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기능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림 10〉 : 1930년대 보래관의 1층 확대 사진

사진 우측으로부터 출입구 → 매표소 → 광고판(입간판) → 넓은 창문(빛 투과) → 의자에 앉은 관리인 → 상하로 열린 창문 → 극장을 쳐다보는 행인의 순서로, 위의 사진은 관련 풍광과 인물 양태가 포착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1920년대 목조 보래관이 기본적으로 구가했던 1층 면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극대화하여, 1930년대 보래관이 생성 개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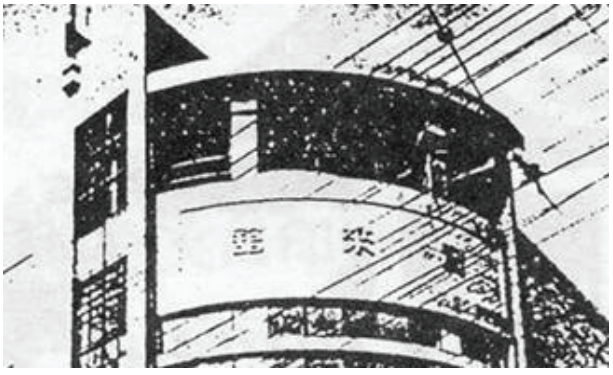


〈그림 11〉 : 1930년대 보래관의 2-3층 확대 사진

1930년대 보래관의 2-3층 측면 사진은 1920년대 보래관과 크게 변모된 점을 부각한다. 일단 가장 주목되는 점은 유리창으로 여겨지는 창문을 다수 배치하여 외부와의 단절을 철폐했다는 점이다. 건물 정면에 해당하는 'ㄱ'의 곡각점에는 부드러운 원형의 건축미가 부여되었고, 이러한 부드러운 미감은 유리창의 조합으로 인해 상당한 화려함을 얻을 수 있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유리창의 사용이 비단 정면만이 아니라, 측면에도 빈도 높게 가미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1930년대 보래관은 극장 내부와 외부의 소통, 즉 빛과 풍광의 흡수 관찰에 용이한 건축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이것은 건물 내부로 들어간 관객들이 폐쇄적이지 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증대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에서 제시한 1920년대 보래관과 비교할 때, 1930년대의 개방적 구조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더구나 1920년대 2층 높이의 건물이 3층을 지나 4층까지 확대되었다고 할 때, 이러한 채광과 관망의 효과와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층에 해당하는 4층 구조를 살펴보자.



〈그림 12〉 : 1930년대 보래관의 상위층 풍경(확대 사진)

1930년대 보래관은 4층에 채광이 가장 능동적인 공간을 마련했다. 극장

구조로 볼 때 이 공간은 영사실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추정된다. 즉 보래관의 1층, 2층과 3층은 객석이고 3층 위의 공간에 해당하는 이 독립된 4층에서 영사 시설을 통해 2-3층 객석의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간의 중요성은 극장 규모상 2-3층의 상당 부분을 객석으로 이용해야 했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하는데, 이러한 중요성으로 볼 때 보래관은 전형적인 영사실을 설치한 극장으로 볼 수 있다.

외부에서 4층을 조망할 때, 채광(통로)과 더불어 유독 주목되는 요소가 '보래관(寶來館)'이라는 극장 명칭이다. 3층과 4층 중간에 걸려 있는 이 극장 이름은, 1920년대 보래관의 극장 현판의 변형으로 여겨진다. 이 현판을 변형하여 글자만 남겨 놓은 형태의 극장 이름을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1930년대 보래관의 구조와 자취는 2010년대에도 남아 그 외형이 확인되고 있었다.



〈그림 13〉 : 1930년대 보래관의 2010년대 외관과 그 내부 풍경[53]

현재 남아 있는 보래관(극장의 최후 명칭은 '문화극장') 건물은 은행(국민은행 광복동 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체적 외관과 출입문 위치 그리고

53) 1930년대 보래관이 2010년대에도 존속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관은 '동아대 건축연구실'이었지만(「소화·보래관(일제 강점기 개관 부산 근대극장), 80년 역사 간직한 채 그 자리에…」, 『부산일보』, 2016년 8월 29일), 그 이전부터 보래관의 후신인 '문화극장'이 2010년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은 암암리에 공인된 사실이기도 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블로그에서는 그 증거를 일찍부터 예시하고 있었다(https://blog.naver.com/tstop/30174023109). 논의 관련 사진 자료는 다음 출처에서 인용했다.

건물 높이 등에서 과거 보래관의 건축 외형과 내부 구조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내부에는 2층으로 오르는 원형 계단이 남아 있어, 1930년대 당시 1층 출입구 앞은 로비로 설계되고, 2층 객석으로 오르는 통로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층 모퉁이 출입구를 통해 입장한 관객은 1층 평면 관객석으로 입장할 수도 있고, 2층 측면 관객석으로 입장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원형 계단은 2층이 상층 관객석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증거이다.

보래관은 1910년대 모습부터 계속해서 변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건물의 기능과 객석의 효율성 그리고 극장으로서의 특징과 장점을 제고하려는 변화를 모색해왔다. 그 결과 현재에도 보래관이 인파들의 이동에서 극장으로서의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방안을 계속 궁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보래관의 영화 상영과 상영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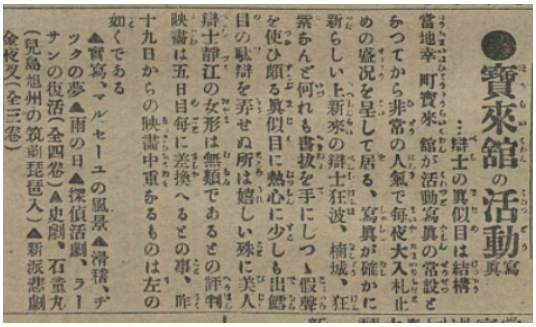
1) 보래관의 영화 공급과 상영 영화 사례

보래관은 日活(니카츠) 계열에서 작품을 공급받아 운영되는 극장이었다. 보래관의 경쟁극장이었던 소화관(昭和館)이 東宝(株式会社) 계열의 극장으로 연계되어 활동을 꾸려간 것과는 대조적이다.[54] 더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보래관이 영화상영관이기는 했지만, 영화만을 상연한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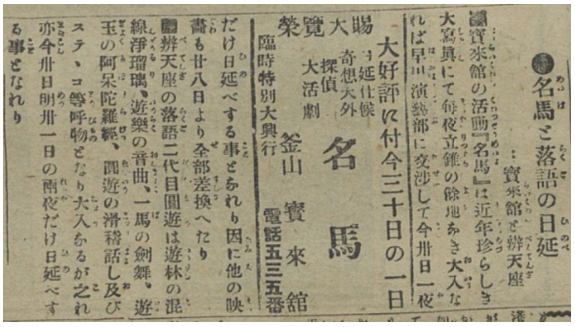
보래관에서 상연된 장르로는 활동사진을 비롯하여,[55] 연쇄극,[56] 만담,[57] 낭화절,[58] 여낭화절,[59] 그리고 신파극,[60] 양극,[61] 등으로 다채로웠다. 도량

54) 김남석, 앞의 글, 2020.
55) 「보래관[寶來舘]의 활동사진」, 『부산일보』, 1915년 3월 20일, 5면.
56) 「보래관[寶來館]을 엿보다 ; 낭화[浪花] 연쇄극이 호평」, 『부산일보』, 1918년 1월 23일, 4면.
57) 「보래관[寶來館]의 낙어[落語]」, 『부산일보』, 1915년 1월 10일, 5면 ; 「보래관[寶來館]의 낙어[落語](만담)」, 『부산일보』, 1915년 2월 7일, 5면.
58) 「화접[花蝶]과 길전소수[吉田小壽] ; 보래관[寶來舘]의 낭화절[浪花節]」, 『부산일보』, 1915년 1월 23일, 5면.
59) 「보래관의 화접(花蝶) 일행」, 『부산일보』, 1915년 1월 20일, 5면.
60) 「보래관의 신파극 천엽신차[千葉新次]」, 『부산일보』, 1917년 10월 23일, 4면.

용기 검사장[62] 등의 극장 시설 이외의 행사장으로도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래관은 기본적으로는 상설영화상영관이나 전용 극장 등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각종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곤 했다.


寶來館の活動 寫眞
…辯士の眞似目は結構
當地幸町寶來館が活動寫眞の常設と
なつてから非常の人氣で毎夜大入札止
めの盛況を呈して居る、寫眞が確かに
新らしい上新來の辯士狂波、楠城、狂
紫なんど何れも書拔を手にしつゝ假聲
を使ひ頗る眞似目に熱心に少しも出鱈
目の駄辯を弄せぬ所は嬉しい殊に美人
辯士靜江の女形は無類であるとの評判
映畫は五日目毎に差換へるとの事、昨
十九日からの映畫中重なるものは左の
如くである
▲實寫、マルセーユの風景▲滑稽、ヂ
ツクの夢▲雨の日▲探偵活劇、ラー
サンの復活(全四卷)▲史劇、石童丸
(見島旭州の筑前琵琶入)▲新派悲劇
金夜叉(全三卷)

〈자료 11〉: 보래관의 활동사진[63]


名馬と落語の日延
…寶來館と辨天座
寶來館の活動『名馬』は近年珍らしき
大寫眞にて毎夜立錐の餘地なき大入な
れば早川演藝部に交渉して今卅日一夜
大好評に付今三十日の一日
賜大覽榮
日延仕候
奇想天外
探偵
大活劇
名馬
釜山 寶來館
臨時特別大興行
電話五三五番
だけ日延べする事となれり因に他の映
畫も廿八日より全部差換へたり
辨天座の落語二代目圓遊は遊林の混
線淨瑠璃、遊樂の音曲、一馬の劍舞、遊
玉の阿呆陀羅經、圓遊の滑稽話し及び
ステ、コ等呼物となり大入なるが之れ
亦今卅日明卅一日の兩夜だけ日延べす
る事となれり

〈자료 12〉: 보래관의 상연 예제 〈명마〉[64]

다만 극장의 기본 운영 방침으로 볼 때, 보래관이 활동사진관을 표방하며 운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30년대 이후에는 그러한 이미지가 더욱 강조된 것도 사실이다.[65] 부산좌가 연극전용관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

61) 「하토 계속(보래관의 양극)」, 『부산일보』, 1916년 7월 15일, 5면.
62) 「부산도기검사(釜山度器檢査)」, 『조선일보』, 1924년 10월 20일, 3면.
63) 「보래관[寶來館]의 활동사진」, 『부산일보』, 1915년 3월 20일, 5면.
64) 「보래관과 변천좌의 〈명마[名馬]〉와 낙어[落語]의 일정」, 『부산일보』, 1915년 5월 30일, 5면.

었다면, 보래관은 활동사진 상설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고수한 셈이다.

보래관에서 상영된 〈명마〉는 당시 보래관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 유효한 근거가 된다. 1915년 5월 보래관에서 상영된 〈명마〉는 조천연예부(早川演藝部)에서 제공한 필름(콘텐츠)이었다. 이 조천연예부는 재조선 일본 사업가 早川增太朗(하야가와 마쓰타로)이 설립 운영한 연예회사(연예부)를 가리킨다.[66] 1905년 13사단사령부부(13師團司令部附)로 함경남도 함흥에 주둔하면서 조선에 머물게 되었던 早川(增太朗)은 그 이듬해 조선 정부에 초빙되어 재정고문부에 들어갔으나, 1909년 이 직책을 사직하고 용달업(用達業)에 뛰어들었고, 1911년에는 측량대서업을 시작하였으며, 1913년에 황금관 내에 상설활동사진관 겸하여 운영하였다.[67] 1915년 전후 조천연예부는 표관의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早天(增太朗)은 표관 영업자였고,[68] 실제로 早川(增太朗)이 표관에 영화(필름)를 공급했다는 정황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69] 더구나 早川(增太朗)이 이후 조선 영화계에 투신하거나 소녀가극단('대련소녀가극단')을 탄생시킨 이력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早川(增太朗)과 관련 회사(연예부)의 활동 내력과 관련 정황을 참작할 때, 조천연예부가 보래관과 영업적 제휴를 맺고 영화 필름 공급자로 활동했다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1915년 무렵은 조천연예부와 당시 경쟁 회사였던 신전연예부 사이의 영업 주도권 마찰이 격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산 영업권의 보호 역시 민감했던 시점으로 파악된다. 위의 자료는 조천연예부가 적어도 보래관의 영업권을 확보하는 데에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

65) 「극장 화재 일시 대혼잡」, 『동아일보』, 1930년 10월 12일, 6면.

66) '조천연예부(早川演藝部)'와 '조천(早川)'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했다(김남석, 『조선의 지역 극장』, 연극과인간, 2018, 282-284면).

67) 『실업인명』, 269면; 『신사명감』, 60면.

68) 이희환, 「인천 근대연극사 연구」, 『인천학연구』 5, 인천학연구원, 2006, 72-76면.

69) 1910년대 중반 '조천연예부'에서 '신전연예부'로 표관의 경영권이 이전한다(「新田演藝部」, 京城日報(附錄 其三), 1917年 1月 1日1, 한상언, 「하야가와연예부의 유락관 경영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62, 한국영화학회, 2014, 399-400면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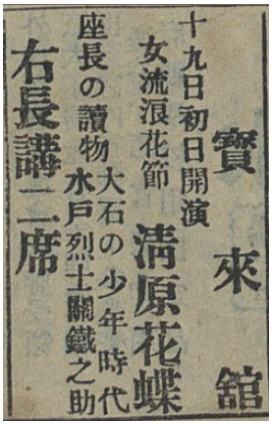
2) 전단지를 활용한 상연 예제 광고

보래관에서 상연된 장르로는 활동사진을 비롯하여,[70] 연쇄극,[71] 만담,[72] 낭화절,[73] 여낭화절,[74] 그리고 신파극,[75] 양극,[76]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래관은 기본적으로는 상설영화상영관이나 전용 극장 등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각종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 극장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래관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전하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의 자료는 그 방안을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유용한 단서에 해당한다.



〈자료 13〉 : 〈전화〉 포스터[77]



〈자료 14〉 : 보래관 광고[78]

70) 「보래관[寶來舘]의 활동사진」, 『부산일보』, 1915년 3월 20일, 5면.
71) 「보래관[寶來館]을 엿보다 ; 낭화[浪花] 연쇄극이 호평」, 『부산일보』, 1918년 1월 23일, 4면.
72) 「보래관[寶來館]의 낙어[落語]」, 『부산일보』, 1915년 1월 10일, 5면 ; 「보래관[寶來館]의 낙어[落語](만담)」, 『부산일보』, 1915년 2월 7일, 5면.
73) 「화접[花蝶]과 길전소수[吉田小壽] ; 보래관[寶來舘]의 낭화절[浪花節]」, 『부산일보』, 1915년 1월 23일, 5면.
74) 「보래관의 화접(花蝶) 일행」, 『부산일보』, 1915년 1월 20일, 5면.
75) 「보래관의 신파극 천엽신차[千葉新次]」, 『부산일보』, 1917년 10월 23일, 4면.
76) 「하토 계속(보래관의 양극)」, 『부산일보』, 1916년 7월 15일, 5면.
77) 「〈전화[戰禍]〉의 포스터 ; 보래관[寶來館]」, 『부산일보』, 1916년 9월 18일, 4면.
78) 「보래관」, 『부산일보』, 1915년 1월 19일, 5면.

보래관에서 발행하여 광고용으로 뿌린 전단지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에 극장의 홍보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 두 사례를 찾을 수 있다.[79]



〈자료 15〉 : 영화 〈오몽녀〉의 경심관 전단지[80]



〈자료 16〉 : 춘추극단의 도화극장 공연[81]

우측 광고 전단지(〈자료 14〉)는 대전 경심관에서 홍보를 위해 제작한 전단지로, 1937년 나운규 감독의 영화 〈오몽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노재신의 얼굴을 전면에 인쇄되었고, 출연진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으며, 그 밖에도 각종 정보를 담아 관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자료 15〉에서도 상연 예제와, 극단 명칭('춘추극단') 그리고 공연 장소('도화극장')가 분명하게 기록된 전단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위의 보래관 전단지에서도 동일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작품 명(칭)이 전단지 중앙에 자리 잡고 보는 이의 시각적 중심을 이끌고 있다. 또한 '보래관'이라는 상연 장소가 전단 아래에 넉넉하게 인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편집되어 보는 이들을 압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npbs_1915_01_19_w0005_0670

79) 두 전단(지)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기본적으로 참조했다(김남석, 『조선의 지역 극장』, 연극과인간, 2018, 196-197면.

80) 「나운규 영화 〈오몽녀〉 전단지 경매…시작가 500만 원」, 『뉴시스』, 2018년 3월 15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5_0000253594

81) http://blog.naver.com/sweetdream4u?Redirect=Log&logNo=70083057548

전단지는 홍보 문건인 만큼 관객들 혹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극 욕구를 자극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만큼 과도한 정보량이나 빡빡한 인쇄 방식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래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자료 14, 15〉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다만 보래관 〈전화〉 광고에서는 사진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쉽게 짐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가 의도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분별하기 어렵지만, 보래관 운영진이 상연 콘텐츠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자극을 유도하려 했던 의도는 내보인 셈이다.

5. 결론: 부산을 지킨 극장, 시대를 증언한 극장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산에는 주목할만한 극장이 생겨났고, 1910년대에는 초기 극장의 낙후함을 벗어나서 개성적인 외관과 새로운 운영 전략을 지닌 극장들까지 출몰했다. 1915년에 개장한 보래관은 대표적인 극장으로, 이후 보래관은 행관(소화관), 상생관 등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성장했다.

지금까지 견해는 보래관을 영화관으로만 취급했지만, 기실 보래관은 '기석극장'으로 출발했다. 1910년대 창립 당시 보래관은 '기석(寄席) 보래관(寶來舘)'으로 흔히 지칭되었고, 이러한 명칭에는 개장 초기 보래관이 상설영화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명칭은 당시 보래관이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재담・만담・야담 등을 공연하는 대중적 연예장"을 겨냥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보래관이 상설영화관으로 변모한 시점은 1916년이었다. 보래관의 이러한 돌연한 변화는, 당시 인근 극장이자 경쟁 극장이었던 상생관의 면모(변천좌에서 상생관으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82] 사실 1910년대 중반에는 가부키 극장을 고수했던 부산좌 역시 영화 상영 비중을 늘려 자체적인 변모를 도모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83] 1910년대 부산에서 극장의 변신은 일반

82) 김남석, 같은 글, 2018, 167-212면.

적인 추세였다. 다만 본론에서도 확인한 대로, 보래관은 일제 강점기에도 영화 이외의 관람 콘텐츠를 상연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했다.

해방 이후 서울과 대구, 그리고 부산에 국립극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이러한 방안이 확정되면서 부산의 보래관은 국립극장으로 지정되었다. 아무래도 영화상설관이었던 만큼 국립극장의 공연 환경에 맞추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립극장 지정이 철회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래관은 극장 본연의 기능을 잃고 정부 시설로 차출되었다. 8.15 해방 직후에도 미군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래관은 끊임없이 일반 대중의 품을 떠나는 사건을 겪는 비운의 극장이었다고 해야 한다.

보래관이 정부 시설로 쓰이고 문교부 산하에서 대여 건물로 전락한 점에 대해 문화 예술인들은 반환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그 효과가 미미했고, 결국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보래관(문화극장)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덕분에 문화극장은 일반 극장이 경험하기 어려운 역사의 흔적과 기구한 시대의 아픔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보래관이 해방 이후 극장 명 공모를 통해 국제영화극장이 되었고(1946년), 국립극장이 되었다가 인가가 취소되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고(1949년), 정부 시설로 차출되어 공공시설(혹은 창고)로 사용되다가 다시 문화극장으로 돌아오는(1959년) 이력은 주목되어야 한다. 그것은 극장을 다루는 지난 시대의 무지와 폭압 그리고 문화적 수준과 저항 정신을 고루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극장은 보존되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극장을 역사 속으로 묻어 버렸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 보래관의 성세를 생각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1930년대 보래관은 부산의 영화가(극장가)를 이루는 핵심 극장이면서, 외관상으로도 '명장화'를 이끄는 주목되는 건물이었다. 당시로서는 부산 장수통의 상징이자 랜드마크였고, 3층의 근대적 건축미를 자랑하는

83) 김남석, 「부산의 극장 부산좌(釜山座) 연구—1907년에서 1930년 1차 재건 시점까지」, 『항도부산』 35,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18, 335-338면.

놀라운 건축물이기도 했다.[84] 그리고 이러한 보래관의 외형과 함께 극장이 자리 잡은 장수통과 구체적 위치는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보래관과 소화관은 오랫동안 장수통과 영화가(극장가)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러한 역할은 8·15해방 이후 해방 공간, 6·25전쟁 이후 피란 공간, 그리고 환도 이후 지역 공간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이 시점에서 보래관은 다른 극장과는 달리 공연예술과 영화 상연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을 받았지만, 일제 강점기 장수통 메인도로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 예술의 거리를 유지하고 이를 확장하여 미래의 유산으로 넘겨주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 극장가는 1960-70년대를 건너 부산의 '영화거리'로 남아 있었고, 1990년대 즈음에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영화 단체의 인프라로 기능하였다.

연구 범위의 집중을 위해 본론에서는 상세하게 논구하지 못했지만, 보래관(해방 이후 문화극장)의 운명과 부침 속에는 정치적 혹은 행정적 명령으로 문화와 예술의 집적장이어야 할 극장이 정부 시설이자 창고로 전락하고 관련 문화 행사만 전담하는 반쪽 공연장으로 머문 시절의 기억이 포함되어 있다. 미군 시설로 차출되기도 했고, 정부 시설로 강제되기도 했던 이 시절의 기억을 결국 보래관(문화극장)이 이겨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인과 정부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무관심 속에서 사라지는 운명도 숨길 수는 없겠지만, 문화와 예술의 힘을 결국 제도나 정치 그리고 외부적 강압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속성을 지녀야 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극장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래관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새로운 문화 예술 공간의 창달에 앞서 그 운명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84) 「명장화[明粧化]된 부산의 영화가: 보래관과 상생관의 신축, 당당한 3층의 근대 건축미 실현」, 『부산일보』, 1937년 3월 27일, 3면.

▮ 참고문헌

「〈전화[戰禍〉의 포스터 ; 보래관[寶來館]」, 『부산일보』, 1916년 9월 18일, 4면.
「〈치누[ちぬ]의 포고주[浦孤舟]〉, 태평관에서 개연」, 『부산일보』, 1925년 9월 14일, 2면.
「2대 목운[目雲] 부산 와 ; 보래관에서 공연 펼쳐」, 『부산일보』, 1917년 4월 6일, 7면.
「가을바람의 중심에 서서 (1) 부산 키네마 작품 희활극[喜活劇] 〈부서진 협정〉」, 『부산일보』, 1928년 10월 5일, 6면.
「국립극장 설치 부산 대구 등지는 결정」, 『경향신문』, 1949년 1월 19일, 3면.
「국립극장의 환도(還都) 시급 문총(文總) 등서의 요망성(要望聲) 점고(漸高)」, 『동아일보』, 1957년 1월 9일, 4면.
「극장 인부로 조직된 대절도단(大窃盜團) 검거」, 『조선일보』, 1937년 5월 29일, 7면.
「극장 화재 일시 대혼잡」, 『동아일보』, 1930년 10월 12일, 6면.
「나운규 영화 〈오몽녀〉 전단지 경매…시작가 500만 원」, 『뉴시스』, 2018년 3월 15일.
「남하(南下) 삼개월의 국회」, 『조선일보』, 1950년 10월 28일, 1면.
「녹정예창기위안회」, 「부산일보』, 1925년 5월 2일, 7쪽,
「명장화[明粧化]된 부산의 영화가 ; 보래관과 상생관의 신축, 당당한 3층의 근대 건축미 실현」, 『부산일보』, 1937년 3월 27일, 3면.
「보래관 사진 차환」, 『부산일보』, 1915년 5월 4일, 5면.
「보래관 신사진[新寫眞] ; 본사 독자 우대」, 『부산일보』, 1917년 10월 21일, 6면.
「보래관 활동의 활동」, 『부산일보』, 1916년 4월 9일, 5면.
「보래관[寶來館] 신축」, 『부산일보』, 1916년 9월 29일, 7면.
「보래관[寶來館]을 엿보다 ; 낭화[浪花] 연쇄극이 호평」, 『부산일보』, 1918년 1월 23일, 4면.
「보래관[寶來館]의 낙어[落語](만담)」, 『부산일보』, 1915년 2월 7일, 5면.
「보래관[寶來館]의 낙어[落語]」, 『부산일보』, 1915년 1월 10일, 5면.
「보래관[寶來館]의 준공」, 『부산일보』, 1916년 12월 27일, 5면.
「보래관[寶來舘]의 활동사진」, 『부산일보』, 1915년 3월 20일, 5면.
「보래관」, 『부산일보』, 1915년 1월 19일, 5면.
「보래관과 변천좌의 〈명마[名馬]〉와 낙어[落語]의 일정」, 『부산일보』, 1915년 5월 30일, 5면.
「보래관에서 열린 제국재향군인회 부산분회」, 『부산일보』, 1925년 6월 22일, 2면.
「보래관은 활동사진 상설」, 『부산일보』, 1915년 3월 7일, 5면.
「보래관의 신파극 천엽신차[千葉新次]」, 『부산일보』, 1917년 10월 23일, 4면.
「보래관의 피로연」, 『부산일보』, 1915년 1월 19일, 5면.
「보래관의 화접(花蝶) 일행」, 『부산일보』, 1915년 1월 20일, 5면.
「본지(부산일보) 애독자 우대와 보래관」, 『부산일보』, 1916년 1월 29일, 5면.
「부산문화극장 국방부서 관리」, 『마산일보』, 1956년 5월 9일, 2면.
「부산문화극장 반환 백총리에 진정서」, 『조선일보』, 1954년 1월 18일, 2면.
「부산 보래관의 본보독자 우대」, 『조선일보』, 1925년 8월 7일. 3면.
「부산도기검사(釜山度器檢查)」, 『조선일보』, 1924년 10월 20일, 3면.
「부산보래관(釜山寶來舘) 발화」, 『조선일보』, 1930년 10월 11일, 7면.

「부산부 제1부회 부의장 선거」, 『부산일보』, 1939년 6월 7일, 1면.
「부산부 행정조사회 위원결정」, 『중외일보』, 1928년 7월 24일, 4면.
「부산부」, 『대일본직업별명세도』, 1929-1930년 간행.
「부산좌」, 『부산일보』, 1916년 1월 3일, 3면.
「석교암길[石橋岩吉] 씨 사망」, 『부산일보』, 1934년 9월 14일, 2면.
「소화・보래관(일제 강점기 개관 부산 근대극장), 80년 역사 간직한 채 그 자리에…」, 『부산일보』, 2016년 8월 29일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60830000106)
「십팔세 처녀 유괴 매각범 부산서(釜山署)에서 엄탐중(嚴探中)」, 『동아일보』, 1938년 9월 2일, 3면.
「운[雲] 드디어 개연 ; 13일부터 보래관에서」, 『부산일보』, 1917년 4월 13일, 7면.
「절도범 삼십일명에 피해액 만여 원」, 『조선일보』, 1937년 6월 19일, 3면.
「〈치누[ちぬ]의 포고주[浦孤舟]〉, 태평관에서 개연」, 『부산일보』, 1925년 9월 14일, 2면.
「태평관 우물은 병균과 무관계」, 『부산일보』, 1929년 8월 6일, 4면.
「태평관의 화재 소동 곧바로 진화」, 『부산일보』, 1927년 12월 20일, 4면.
「하토 계속(보래관의 양극)」, 『부산일보』, 1916년 7월 15일, 5면.
「화접[花蝶]과 길전소수[吉田小壽] ; 보래관[寶來舘]의 낭화절[浪花節]」, 『부산일보』, 1915년 1월 23일, 5면.
『신사명감』
『실업인명』
『조선공로자명감』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s://www.kmdb.or.kr/main)

김남석, 「부산의 극장 부산좌(釜山座) 연구—1907년에서 1930년 1차 재건 시점까지」, 『항도부산』 35,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18, 335-338면.
_____, 「부산의 지역 극장 상생관의 역사적 전개와 운영상 특질에 관한 연구」, 『항도부산』 36,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18, 167-212면.
_____, 『조선의 지역 극장』, 연극과인간, 2018, 196-284면.
_____, 「부산의 지역 극장 소화관(昭和館)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1931년 설립부터 1968년 폐업까지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20, 402-442면
이희환, 「인천 근대연극사 연구」, 『인천학연구』 5, 인천학연구원, 2006, 72-76면.
한상언, 「하야가와연예부의 유락관 경영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62, 한국영화학회, 2014, 399-400면
홍영철, 『부산극장사』, 부산포, 1914.
오자사 요시오, 이혜정 역, 『일본의 극장과 연극』, 연극과인간, 2006, 82면.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3-1929년 판), 동아경제시보사.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 네이버 지도(2017년 6월 21일 검색)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거리뷰)」, 네이버 지도(2017년 6월 21일 검색)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weetdream4u?Redirect=Log&logNo=70083057548)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stop/30174023109)
「보래관」, 『NAVER 지식백과』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and Theater Operation of the Theater Boraegwan in Busan

Kim, Nam-Seok*

Boraegwan was a theater established in Busan in the 1910s and operated as a theater until the 1970s. Boraegwan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theater after liberation, but was also cancele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Boraegwan was used as a government department, and after that, it was transformed into a theater that local residents demanded for its return. The name of the theater was changed from Boraegwan to Gukjeyeonghwageukjang (International Film Theater) in 1946, and then to Munhwageukjang (cultural theater) in 1950. This theater has long been Busan's representative theater, and since it was one of the three best theaters in the Busan area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has been a theater that many people find, remember, and use from an early age. However, contrary to this historical situation the studies to illuminate the value of this theater and analyze its history were very insufficient. Moreover, it had to face the worst ending in which the traces of the Boraegwan disappeared.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focus on the study of Boraegwan with the purpose of filling this gap in the history of research and exploring the birth and history of the Busan theater district, and the process of decline and dissolution.

Keywords: Boraegwan, Busan, local theater, Munhwageukjang (cultural theater), Gukjeyeonghwageukjang (International Film Theater).

접수일: 2022.06.22.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17.

* Professor,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Pukyong National Univ.